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사회 구조변동과 사회운동의 내적 구성 변화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의 프레임 분쟁과 조직분화를 중심으로

이창언
성공회대학교

〈논문요약〉

본 연구는 1990년대 민족해방운동 계열이 주도한 최대 청년운동조직인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이하 한청협)'의 출범과 분화과정을 고찰하는 것이다. 한청협의 출범과 분화의 과정은 지구적-한국적 전환의 시기, 사회운동의 레퍼토리(repertory)와 그것의 변화과정을 보여준다. 특히 거시 구조적 사회변동, 이에 대한 인식, 해석 틀, 행위전략을 둘러싼 경합을 시계열적으로 추적해 (1) 한청협의 성격과 특징, (2) 내적 긴장과 갈등, (3) 프레임 분쟁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개괄적으로나마 현 시기 진보적 정치·사회운동의 위기의 원인에 대한 역사적 연원(淵源)도 살펴본다.

한청협 내부의 프레임 분쟁은 정치조직과 통일운동에 대한 첨예한 경합과 각축이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1) 기회와 위협에 대한 인식, (2) 한국사회 구조변동, 사회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둘러싼 인식의 차

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 전제이다.

한청협의 성장과 분화과정은 NL론의 양면성(성공의 조건과 혁신의 불가능성)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다. 한청협 프레임 분쟁은 (1) NL론 등장과 확산 이후 NL노선에 대한 최초의 집단적 문제제기이고, (2) 통합진보당 등 NL주류세력의 운동 패턴과 한계, 그로부터 기인한 현 시기 진보정치 위기의 근원을 추적하는 역사적 사건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 주요어: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한청협 AYOK), 청년운동,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NLPDR)론, 프레임 분쟁, 위기와 기회

1. 들어가며

1990년대 중후반 이후 전통적 민중운동 내에서도 점차 계급·민족 지향적 프레임과는 다른 새로운 사회운동과 제도정치 영역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는 우리 사회가 권위주의에서 벗어나 점차 민주화·다원화되면서 과거와 다른 형태의 운동과 그 실현수단으로서 합법적인 방식의 저항과 의회(중앙·지방)가 가지는 의미가 새롭게 조명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김영삼 정부 주도의 세계화 담론과 지방자치시대(1995년 6·27 지자체선거)가 본격화되는 시점을 전후하여 확산된다. 여기에는 김영삼 정부의 노동권과 자치권의 제한에서 기인한 민주주의의 정당성 위기(legitimacy crisis)가 도화선으로 작용하였다.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이하 한청협)를 비롯한 전통적 민족민주운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동 진영 내부에서 새로운 운동방식에 관심을 두게 된 이유는 정치적 기회구조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한국사회운동은 1990년대 초를 기점으로 사회운동의 주류를 형성했던 민주화운동이 쇠퇴하고 시민사회의 다양한 관심을 반영한 새로운 운동들이 활성화되었다(조대엽 2005). 1987년 항쟁 이후를 민주화의 이행기로 규정하고 민주화과정을 긍정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제도정치와 국가의 개방적 재편, 시민사회의 자율성의 확대란 차원에서 설명될 수 있다. 군부권위주의의 퇴조, 절차적 민주주의의 확장, 지방자치제 확산, 계급적 대중운동의 조직적 발전, 민중운동과 구별되는 시민운동의 출현과 분화라는 국내적 맥락의 기회구조의 변화와 동구 사회주의의 몰락, 세계화 담론의 확산이라는 국제적 맥락의 기회구조의 변화는 운동 프레임의 전면적 수정과 전환을 둘러싼 내적 논쟁을 심화시켰다.

이러한 기회구조의 변화는 운동의 위기이자 기회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다. 국내적 맥락의 기회구조의 변화를 주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의회 참여와 혁신적 활동이라는 변화는 의사결정권한의 공유, 지역자치권과 독립성 함양, 민중 참여를 통한 전선 확장이라는 운동조직의 행위전략을 실현할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운동 주기는 민주화운동의 쇠퇴와 새로운 운동주기를 예고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위로부터의 민주화 이행(조희연 1998, 149-150), 제도정치의 변화가 '변형주의(transformism)'적 재편(조희연 2001), 민중운동과는 구별되는 시민운동이 출현과 시민운동 내부의 다양한 분화가 그것이다. 이는 전통적 민주화운동의 쇠퇴, 원심력적인 분립의 성격을 강화하였다. 여기에 더해 국제적 맥락의 기회구조의 변화, 즉, 동구 사회주의 몰락,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담론의 확산, 1997년 외환위기와 개방화/지구화는 '민족 국가 내의 상황들'을 넘어선 글로벌한 상황들에 대응할 사회운동의 응전을

요청받게 된다(조희연 2004).

민주화운동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 한청협도 이러한 거대한 전화 과정에서 대두된 민족-민주운동의 조직발전을 위한 논쟁의 중심에 서면서 한국민족민주청년단체협의회(1999/02/06)와 한국청년연합(KYC)으로 분화한다. 이러한 분화는 한국사회 구조변동, 사회운동의 방향과 역할을 둘러싼 인식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청협의 출범과 해소의 전 과정은 1990년대 이후 지구적-한국적 전환의 시기, 집합행동의 레퍼토리(repertories of collective action)[1]와 그것의 변화과정을 보여준다. 또한, 이 과정에 대한 엄밀한 분석은 현시기 진보적 정치·사회운동의 위기의 역사적 원인에 대한 연원(淵源)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다시 말해 과거 한청협의 내부 논쟁에서 이미 NL의 성장, 노동정치·진보정치에 대한 인식과 왜곡, 실패(진보세력의 노선과 전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한청협에 대한 연구는 새로운 진보정치운동의 주체형성과 과제를 찾는 연구사적 의미가 있다.

1) 연구의 대상과 시기

이 연구는 지금까지 학술논문으로는 한 번도 다뤄진 바가 없는 1990년대 청년조직에 대한 최초의 역사적 연구이자 87항쟁 이후 한국민주화

---

1) "찰스 틸리는 집단행위의 레퍼토리를 "공동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아주 제한되고 잘 정립된 일련의 행위수단들(Tilly 1977, 39)로 정의한다. 이 정의의 핵심은 공동의 목표와 행위수단이다. 여기서 이 행위수단들은 행위자들이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항집단과 그 적대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구조화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특정한 행위자 집단이 특정한 국면 또는 시기에 왜 특정한 형태의 레퍼토리를 사용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도전-억압의 쌍방적 행위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능하다(신진욱 2004, 222-223)."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운동의 변화에 관한 경험 분석적 연구이다. 정초연구가 대체로 역사 기술적 접근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이 연구는 경험 분석적 연구의 장점을 접목하고자 한다.

한청협에 대한 역사적-경험 분석적 접근은 민주화운동의 독자적 영역으로서의 청년운동의 등장(부활)과 한청협의 특징, 성장(요인), 분화를 포함하여 한국사회운동의 변화과정, 내적 긴장과 동학을 밝히는 것이다. 이는 거시 구조적 사회변동이 사회운동의 내적 구성과 외적 관계에 미친 결과 외에도 청년운동 내부 주요 행위자의 대응(전략)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한청협운동의 내적 구성을 둘러싼 외적 관계와 주관적 의미 틀의 변화를 중심으로 3개의 소시기를 구분하여 진행한다. 본문에서는 별도의 설명은 하지 않지만 민주화운동청년연합(1983/09)의 출범부터 87년 항쟁 이후 대중적 청년단체의 등장과 전국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1989/01/19) 출범을 1시기로 설정한다. 그리고 3년여간의 전청협 건설 논의, 한청협 출범(1992/02/23), 해소(1998/09/20)과정을 2시기로 설정한다. 마지막으로 한청협 해소 이후의 청년운동을 3시기로 설정하되 한청협 출범과 해소를 전후한 2시기를(등장-성장-분화라는 3개의 소시기로 구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한청협 연구에서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이하 민청련)을 포함한 이유는 양 조직이 청년운동의 공통적 특성과 동시에 차이(단절성과 연속성)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렇다. 양 조직에 대한 비교는 1980년대~1990년대 한국 사회운동의 이념, 조직, 행위양식의 변화는 물론 한청협의 특징을 도출하는 데 유용하다.

2) 선행연구 검토

한청협은 출범 이후 1992년 대선, 통일운동, 5·18 내란책임자 처벌 촉구투쟁, 안기부법·노동법 개악 반대투쟁, 지방의회 대응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한청협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하 전국연합)과 각 지역연합의 주요 집행단위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한국사회운동의 이론정립과 전선구축, 자주민주통일운동에서 주도성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청년운동은 물론이거니와 한청협에 대한 연구는 대단히 부족하며, 청년과 청년운동에 대한 개념도 통일되어 있지 않다.

먼저, '청년'에 대한 선행연구의 논의를 살펴보면 크게 '세대 특성'과 '정치적 특성'에 따라 정의하고 있다. 세대 특성은 주로 나이별(10대~30대 초중반), 세대별로 범주화한다. 세대 개념을 사회운동 세력 분석에 활용하는 연구들은 "세대개념을 코호트(cohort)나 연령집단과 같이 명목적 범주라기보다는 계급개념과 마찬가지로 역사적 역동성의 규명에 유용한 사회적 실재"(박재홍 2001, 51; 조대엽 2007, 253 재인용)로 의미부여를 한다. 이범영(1990)은 한국사회에서 청년의 사회적 처지의 공통성에서 저항의 동인을 설명한다. 특정한 공동경험을 통해 형성된, 다른 연령집단과 구분되는 고유한 세대정서를 강조하는 시각이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청년세대의 차이를 무시하고 과도하게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청년운동 조직 구성원의 집합적인 정체성 형성, 행위의 기초가 되는 감정과 정서의 변화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청년운동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겠다. 대체로 청년운동은 '근대적 개념'(최철웅 2011, 16)이자 '역사적 개념'(이범영 1990, 38)으로 정의되고 있다. 근대적이라는 것은 '청년'이 하나의 사회적 계층, 조직운동으로 등장한 기점을 기준으로 정의한 것이다. 서구의 청년운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이 노동운동에 기초한다면 식민지·반식민지 청년운동은 자주와 근대화의 열망을 반영한다고 본다. 그러나 청년운동에 대한 특별한 지위와 역할을 부여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이 교차한다.

세대적 공통성과 청년의 정치적 특성(진취성과 변혁지향성)을 강조하는 논자들은 청년운동을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선봉대이자 통일전선의 매개자·촉매자, 계층운동의 지원대, 새세대 간부 육성의 후비대"로 규정한다. 이러한 시각은 한국의 청년운동의 특성으로 강한 역사성·지속성·정치성을 강조하는 한편, 한국 근·현대사의 맥락 속에서 한국 청년운동을 조명해야 그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1980년대 중후반 이후 NL 계열이 청년운동을 주도함에 따라 '세대적 청년운동론'이 부상한다. 이런 논의는 계급·계층적 처지와 조건이 아닌 의식의 능동성을 강조하는 반제민족해방운동의 특성과 욕망이 투영되어 있다. 노동계급운동의 미활성화, 부문-지역운동 불균등 발전과 같은 한국사회 구조적 특성 때문에 이런 주장이 쉽게 수용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2] NL(민족해방)은 세대적 청년운동론에 근거 한청협 등장의 시기를 '새시대 청년운동의 시기'로 규정한다. 이들은 일제하 식민지 시대(1시기), 분단 직후(2시기), 1950년~1987년을 전후한 분단시대(3시기), 전국적청년조직 건설이 활발히 모색되는 새시대 청년운동 시기(4시기)로 구분한다. 여기서 새시대 청년운동은 한청협의 기본 토대가 되는 새로운 청년회운동을 일컫는 바, 청년 대중에 근거한 운동으로의 전환, 올바른 사상과 이론·방법의 정립과정으로 의미가 격상된다.

---

2) 민주화 운동사에서 청년운동은 1970년대 자유주의적 운동을 지양하려는 준 전위적 운동, 공장 등 집단화된 생산단위에 속하지 않는 활동가들에 의해 제기된 정치투쟁론, 현장투신이 활발히 전개된 80년대 초 기층 민중운동과 구별되는 근로 인텔리 등을 대상으로 했던 '중간층 대중운동론' 등 여러 견해가 상존했다(청년세대의 진로 편집부 1998).

이와 달리 자본주의가 구조화된 한국사회에서 청년, 청년운동 개념은 현실적 유효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대학교육의 보편화, 청년운동 개념에 불가분하게 결부된 민족주의 이념의 역사적 쇠퇴·변형이 이런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다. 오늘날 청년 개념은 라이프 스타일의 차이에 근거하는 G세대나 N세대, 열악한 사회경제적 조건을 지시하는 88만원 세대, IMF세대(최철웅 2011, 15)로 호명된다. 이러한 연구는 청년층이 시대의 변화와 분위기에 가장 민감한 특성 때문에 저항운동에 적극 참여했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이 특성이 양면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본다. 역설적으로 1997년 IMF 이후 본격화된 신자유주의의 논리를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한 세대가 되었다는 것이다. 청년층(20대, 30대)의 문제가 사실상 한국 자본주의 노동시장 문제를 중심으로 한 생존권문제로 변했으므로 청년운동은 노동운동 영역을 더 깊이 고민해야 한다(김영경 2010, 59)는 것이다.

다음은 본 논문의 연구대상인 한청협 관련 선행연구 현황을 살펴보겠다. 이 분야에 대한 학술 논문은 단 한 편도 없다. 이범영(1990), 유기홍(1999), 전상봉(2004) 등 한청협 주요 간부의 단행본과 단편 글, 보고서가 전부라 할 수 있다.

먼저, 한청협 10년사(유기홍 편 1999)는 한청협 10년의 역사에 대한 보고서로서 사료적 가치가 대단히 크다. 수민청 동우회(2007)가 펴낸 『12년의 발자취를 찾아서』도 지역 청년운동 보고서로서 지역 청년운동사를 내부 자료와 회원들의 회상 글로 정리하고 있다.

이범영(1990)과 전상봉(2004)의 연구는 청년운동의 정의, 지위, 역할, 역사, 운동방법을 민족해방론(NL)론에 입각해서 다룬 단행본이다. 한청협 해소 이후에 출간된 전상봉(2004)의 책은 청년운동사를 정리하는 한편, 한청협 내부의 분화과정을 전통적 민중운동(NL)의 관점에서 서술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일 뿐이다.

전상봉(2004), 전상봉·송현석(2004)의 단행본과 글은 연구사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역사 기술적 연구가 갖는 한계를 보여준다. 나아가 주관적·정파적 해석에서 벗어나 더 엄밀하고 객관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과제로 남겨 놓았다. 다시 말해, 청년 운동에 대한 단순한 서술이 아니라 운동의 존재양식과 생성경로를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있는 연구 시각의 정립문제(인식론), 자료의 종류와 수집문제, 적절한 이론 틀(모델) 내지 접근법의 적용(방법론)과 개발(이창언 2009)이 시급하다.

3) 이론적 자원과 방법

본 연구는 한청협에 대한 최초의 학문적 연구시도라는 연구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부담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정초연구가 갖는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전략으로 실증적이며 분석적 연구를 시도한다. 여기서 실증적이라 함은 자료의 미비성을 보완하고, 청년운동에 관한 정파적 해석을 체계적으로 교정하여 객관적이고 상대적 보편성을 지니면서 이념적 맥락을 잡을 수 있는 문서분석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더해 청년운동 주요 행위자의 동기에 대한 심층적 규명과 사회 구조적·문화적 원인에 대한 총체적인 규명 작업을 시도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사회운동의 구성주의적 이론을 활용한다. 구성주의적 관점은 역사적 배경을 중시하면서도 그 배경에 반응하는 주체의 인식과 구성 그리고 담론과 주체의 상호작용 문제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즉, 역사적·구조적 접근이 갖는 메타 이론적 한계와 추상성을 극복 내지 보완(Klandermans 1992)하는 장점이 있다. 경험적으로 볼

때 사회문제가 객관적 현상이 아니라 사회적 구성물이듯이 사회운동도 사회적 의미구성 과정의 주체이자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문화적 구성물로서 해석 틀의 중요성에 주목하는 구성주의적 사회운동이론은 그동안 등한시해왔던 의미화 주체로서 사회운동조직과 개별적인 행위자들의 의미교섭, 사회운동조직과 정치적 기회구조의 상호작용, 이의 결과로서 담론의 변화 등을 총체적으로 분석하는 이론적 잠재력을 지닌다.

본 연구는 구성주의적 접근의 문제의식과 집합행위 프레임 개념을 활용 한청협의 의미체계(이데올로기)와 그 변화과정을 분석한다. 여기서 이데올로기란 "집합적 행위자들이 사회적 관계의 시스템 속에서 그들 자신과 타자에게 자신이 행동을 표현하는 상징적 프레임의 집합이다(Melucci 1992)." 이데올로기는 집합행위 영역을 정의하고 행위를 정당화하는 동시에 운동에 동원되는 행위자와 적대자를 규명하고 운동 목표를 제시하는 역할과 기능을 한다. 따라서 이데올로기는 사회운동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분석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의미체계에 대한 분석은 한청협 내부의 가치와 규범의 공유는 물론 규칙의 안정화(통합적 기능)를 통한 집합적 정체성의 강화와 동원과 포섭(전략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운동 목표를 달성하는 상징적이고 문화적인 층위로서 프레이밍 과정(framing processs)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물론, 멜루치(Melucci 1992)가 강조하는 사회운동의 이데올로기적 차원과 신집합행동론의 집합행위프레임은 동일한 맥락에 서 있다. 그러나 멜루치는 사회운동을 경험적 실재가 아니라 분석에 의해 산출되는 이념적인 구성물로 바라보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회구조와 자원, 조직 등 경험적인 분석이 가능한 집합행동의 하위개념들을 통해 운동의 이데올로기적 차원, 즉 의미체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고프만(Goffman 1974)의 프레임 개념, 스노우와 벤포드(Snow and Benford 1988;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992)의 집합행위프레임 개념을 기본 골격으로 삼고 갬슨(Gamson 1995)의 집합행동 개념을 활용한다.[3)]

본 논문에서는 한청협의 집합행동프레임과 프레임 정렬을 통해 다양한 목표 집단에게 공통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도록 하는 데 성공하기 위한 프레임 공명(frame resonance)[4)] 과정을 대인간 네트워크를 통해 보여주고자 한다. 인지적 해방은 대인간 네트워크와 같은 요소들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동일한 가치, 도덕적 열정, 생활양식을 공유하는 지식인들 사이에 집합적 자기 정체성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미시적인 동원과 중위 동원 맥락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동일한 역사적 사회적 조건 속에 놓여 있는 행위자가 어떻게 문화적으로 동질한 집합적 정체성을 형성하는지를 그리고 개인이 아닌 집단이 사회적 사건이나 모순들의 의미부여와 해석 과정을 통해 쟁점과 상징적 국면을 만들어나가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이창언 2009, 43-44 재인용).[5)]

---

3) 프레임(frame)이라는 개념은 고프만(Goffman 1974)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개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생활공간과 세계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위치짓고 인지하며 이해하고 이름붙일 수 있게 하는 해석의 스키마(schema)를 지칭한다. 스노우와 벤포드(Snow, D. A. & R. D. Benford 1988)에 따르면 집합행동 프레임은 "객관적 상황, 사건, 경험과 과거와 현재의 행동에 대해 특정 부분을 강조하거나 선별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바깥세계를 단순화하고 응축시키는 해석적 기구"라 할 수 있다.

4) 합의의 형성을 위한 집합행위프레임은 잠재적 참여자들의 신념체계의 성격, 그들의 생활세계와 프레임이 일치되는 정도에 의해 구성된다. 프레임 공명을 위한 집합행위프레임의 하위요소로서 스노우와 벤포드는 진단, 처방, 동기 프레임을 제시한다. 갬슨은 불공정 요소, 주체자 요소, 정체성 요소 등의 세 가지를 제시한다.

5) 이 글에서는 집합행위프레임의 하위요소를 이데올로기적 차원(의미체계)뿐 아니라 내부의 경쟁하는 집단(혁신세력 대 전통고수 세력)의 경쟁담론을 설명하는 데 활용한다. 그것은 첫째, 가치와 이념, 지향과 목표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집단의 경계를 설정하는 방식(정의적 프레임, definitional frame). 둘째, 경쟁하는 집단과 해당 집단의 이념과 가치, 행위양식이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비교·규정함(관계적 프레임, relational frame)으로써 집단의 경계를 구성하는 방식. 셋째, 정의적 프레임을 통해 내부 경쟁 집단의 특정한 문제의 원인에 대한

그러나 프레임 분석은 여론 주도층(중앙과 상층간부)의 논의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엘리트적 편향성을 안고 있다. 따라서 아래로부터의 다양한 고민과 문제의식을 살펴보는 별도의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부분적으로 기존 문헌의 증언 글과 심층면접 결과를 활용한다.[6] 증언 글은 한청협 내부 문헌(기관지, 소식지, 회보 등)과 신문 기사 등에 기술된 회고성, 또는 의견, 주장성 글 등을 포함한다.

2. 한국청년운동의 프레임 변화와 전국적 단일청년조직 건설

한청협의 등장과 성격을 분명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해석적 체계가 등장하는 과정, 공론을 통해 경쟁·각축하는 과정, 인식적 실천을 통해 새로운 인식 틀로서의 새로운 가치와 신념의 요소로 대체되는 과정이 설명되어야 한다.

각 조직의 특징을 개괄적으로 설명하면 1980년대 전반기 청년운동의 중심조직인 민청련은 대중노선을 표방했지만, 이념-조직적으로는 사회 변혁적 지향과 활동가 조직의 성격이 강했다. 전국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이하 전청대협)은 민청련보다 대중노선이 강화되기는 하였으나 이념적으로는 NL론으로 수렴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전청대협은 한청협으로 발전해나가는 과도기적 조직으로서 민청련과 비교할 때 조직이 확대

진단(진단적 프레임, diagnostic frame), 문제 해결과 목표 실현(처방적 프레임, prognostic frame)의 방식을 검토한다.

6) 구술이 대상이 광범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청년운동(한청협) 분화의 여파(앙금)와 관련이 있다. 이들의 긴장과 갈등은 현재 정당-사회운동에도 고스란히 남아 있다.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되기는 하였지만 단체대표자 중심의 조직이었다. 이와 달리 한청협은 정치적 대중노선에 입각, 개별 청년회원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회원구조였기에 결속력과 집행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국내외 정세의 변화를 반영하듯 한청협은 이념적으로는 반미-통일론에 대한 전통적 관점이 약화되거나 분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조직, 행위양식에 있어서도 통일전선론과 정치조직론의 담론 경쟁이 전개되고 지역운동, 보다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강조하는 움직임이 강화된다. 한국사회 구조변동은 사회운동 조직의 내적 구성을 변화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한청협의 내부 분화도 예외는 아니었다.

〈표 1〉은 체제변혁적 프레임으로서 민청련의 집합행위프레임과 이

〈표 1〉 민청련과 한청협의 집합행위프레임 비교

	민청련	구분	한청협
	광주민중항쟁 이후	발생	사회주의 몰락, 절차적 민주화, 지구화, 지방자치
	활동가 중심의 조직	조직형태	전국적 단일조직체, 회원중심의 대중조직
	활동의 은밀성	운영방식	공개-합법(반합법)
진단적 프레임	외세와 군부독재의 지배	원인	외세, 자본, 민선민간정부
	반파쇼·반제	이슈	자주민주통일과 지역(정치)운동
처방적 프레임	근본적 변혁	해결대안	체제변혁(전민항쟁, 민중의 총궐기)과 운동정치
	반정부 운동에서 성장한 학생운동가	주도세력	학생운동가와 지역청년
	권력 지향적 전략	전략	권력 지향적 전략과 정체성 지향적 전략
	체제 변혁적	집합행위 프레임	이중구조 (체제 변혁적 프레임/ 체제 비판·개혁적 프레임)

중구조(체제 변혁적-체제 비판·개혁적)를 가진 한청협의 집합행위프레임 즉, 진단 프레임(diagnosis frame, 변화시켜야 할 대상으로 진단하는 것)과 동기 프레임(motivational frame, 잠재적 참여자들을 행동에 직접 참여하게 하는 장치)을 비교한 것이다. 〈표 1〉이 보여주는 핵심적 내용은 '사회운동조직의 집합행위프레임은 사회운동 조직의 전략형태를 규정하는 요인으로 작용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사회운동의 이데올로기적 요소와 사회운동의 발전과정은 집합행위프레임과 전략 선택의 차별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것은 사회주의 몰락, 절차적 민주화, 지구화, 지방자치의 정착으로 인한 정치적 기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동원전략의 변화가 불가피해진 것으로 보인다. 거대한 변화, 시대적 경향성을 반영하는 마스터 프레임(master frame)에 따라 사회운동조직의 구체적인 집합행위프레임도 결정(Snow and Benford 1992), 또는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청년운동가의 해석 틀 변화와 재구성되는 과정을 추적하여 한국청년운동의 프레임을 계급과 민족, 선도적 활동과 대중성의 확장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청년운동 프레임 변화의 전환축으로서 민청련 활동을 시발로 전청대협, 한청협의 활동을 살펴보고 각각의 특징을 설명하고자 한다.

1) 진단적 프레임의 차별화

(1) 민청련: 체제 변혁적 집합행위 프레임

민청련 이전에도 청년운동이 존재했지만 청년운동이 본격적인 조직성과 급진성을 갖춘 토대 위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1983년 9월 30일)의 창립과 함께였다. 민청련은 타 운동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앞서 계급-민족적 지향과 조직-대중운동에 대한 전망을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7] 그것은 민청련의 2대 원칙과 5대 목표에서 확인된다.

민청련의 2대 원칙이란 대중노선과 조직노선을, 5대 목표란 투쟁성의 회복, 내부 역량의 체계화, 타 운동 세력과의 관계(연대), 대중운동에의 참여와 지원, 과학적 운동 정립을 말한다.

민청련은 지역운동협의회나 민중민주운동협의회로 결집하면서 민통련·전민련과 같은 연합운동의 토대를 마련했으나 전국적-대중적 청년단체로 확대·발전하지는 못했다. 그것은 당시 정치적 상황과 이에 대응하는 민청련의 해석 틀 때문이었다. 민청련이 수용한 민중적 프레임은 자유주의적 운동지향에서 더 전투적이고 계급적인 운동을 지향하는 해석 틀로 볼 수 있다. 민청련의 활동가 중심적 조직형태와 활동방식은 1980년 군사쿠데타와 5공화국의 폭력적 재편과정에서 더욱 강화된 반공 보수주의적 단극구조가 가져온 적대적 갈등상황을 반영한다. 국가의 폭력적 성격의 강화는 역설적으로 체제에 적대적인 급진이념의 수용과 재생산의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1985년 총선에서 야당압승, 구로동맹 파업 등에 위기를 느낀 국가권력의 탄압으로 대중적 지평을 확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청련 내부에는 민중(계급)적 프레임의 확산시기에도 반제-대중노선에 대한 문제의식이 상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학생운동의 전통으로 자리했던 민족-민중주의 전통, 연대-연합운동의 과정에서 축적된 상대적 유연성과 관계지형의 영향과 관련이

---

7) 민청련 창립선언문(민주, 민중, 민족통일을 우리 모두에게)에서는 • 민족통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참된 민주정치 • 평등하고 인간적인 생활을 위한 민족자립 경제 • 역동적이고 건강한 민중의 삶을 위한 자생적이고 창조적인 문화, 교육체계 • 국제평화와 민족생존을 위한 냉전체제 해소와 핵전쟁의 방지 등이 제시되어 있다.

있다. 일례로 민청련은 1980년대 연대전선의 중심에 서 있었다. '고문 및 용공조작 저지 투쟁위원회' 결성은 자신에 대한 탄압만이 아니라 반독재전선의 복구와 확장의 의미가 있었다. 민청련은 1986년~1987년 개헌투쟁과 6월 항쟁에 앞장선다.[8)]

6월 항쟁의 결과로 운동공간이 개방되자 1987년 8월 민청련은 제9차 총회를 통해 공개 활동의 폭을 대폭 넓힐 것을 결의하고 동민청과 남민청, 북민청 등의 지부를 창립한다. 이어 1989년에는 안양, 수원, 성남, 중부 등 지부조직을 확대한다. 그러나 대중운동의 활성화 과정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새로운 청년운동회와 조직 간 긴장(경쟁)도 발생한다.

1991년 2월 서울민주청년단체협의회가 결성되면서 전국청년단일조직 건설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청년단일조직의 과제가 제기된다. 1992년 1월 조직발전특위를 구성하면서 민청련 발전적 해소에 대해 본격적 논의가 시작되고 내부 진통을 겪기도 한다. 그럼에도 민청련의 주요 활동가들은 민청련 제15차 정기 대의원총회(1992/11)에서 "민청련을 발전적으로 해소하고, 지부조직은 서청협과 한청협에 가입한다, 서울지역과 전국 청년단일조직 건설한다"는 결의를 함으로써 새로운 청년운동이 흐름에 결합한다. 물론, 민청련의 발전적 해소가 한청협 참여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계급적 지향성이 강한 서울중민청과 안양민청련 등은 독자노선을 채택한다.

---

8) 1985년 9월 28일 민청련 내에 구성된 '고문 철폐를 위한 투쟁위원회'는 10월 17일 '고문 및 용공조작 저지 공동대책위원회' 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실제 이 공동대책위원회를 통한 공동투쟁의 경험은 1987년 5월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는 토대가 되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2) 전국청년대표자협의회: 체제변혁적-체제비판적 집합행동 프레임

6월항쟁 이후의 시기가 시·군·구 단위로 청년단체 결성이 확산되는 시기였다면, 전청대협 결성 이후는 각 시도별 청년단체협의회가 건설되면서 지역 청년운동의 단결력과 대중성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되는 시점이었다. 1990년 3월에 영남지역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영청대협)가 결성되었고, 1991년 2월에는 서울민주청년단체협의회(서청협)가 창립되었으며, 1992년 2월에는 경기남부민주청년단체협의회(경기남청협)가 발족하는 등 조직이 확대되었다.

당시 전국적 청년조직의 건설이 탄력을 받은 이유는 3당 합당과 통일운동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3당 합당(1990/01/22)으로 민자당은 국회에서 개헌선인 2/3를 넘는 218석을 확보하였다. 민족민주운동세력은 이를 3당 야합으로 규정하는 한편, 민주대연합을 강화하여 반민자당투쟁을 전개하였다. 한편, 문익환 목사와 임수경 전대협 대표의 방북 이후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었다. 이런 흐름 속에서 1989년 제안된 범민족대회와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하 범민련) 결성이 구체화된다. 당시 민중운동 진영은 정권의 탄압과 강력한 적(민자당)의 출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반민자당연합전선의 구축과 이의 실질적 토대인 부문조직의 강화를 주요한 과제로 인식하였다. 1989년 1월 전민련 결성에 맞춰 전청대협이 창립된 것도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는 조치였다.

1987년과 1988년은 대중운동의 양적 팽창, 확대가 이루어지던 시기였다. 1988년 3월경부터 민청련의 3개(민청련, 전청련, 충남민청) 지역조직과 새로운 지역 청년회(서울, 부산, 인천, 수원, 대구, 진주 등)가 정기적으로 모여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한다. 주된 과제는 대중운동의 발전

에 조응하는 청년조직과 청년운동의 전국적 단일조직 건설이었다. 전국의 청년운동을 단결시키기 위한 이 운동은 1989년 불과 10여 개 남짓 단체의 참여로 전청대협이 결성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전청대협 창립은 대중운동역량의 성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앞서 서술했듯이 87항쟁 이후 서울의 나라사랑청년회 등 다수의 새로운 청년회가 결성되면서 전국적 단결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전청대협은 대중적 청년회를 중심으로 구성될 수 있었고 대표자협의회 수준이었지만 통일운동과 간부수련회 등을 통해 조직을 확대해 나갈 수 있었다. 전청대협은 전민련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면서 연합전선운동 강화에 기여하였다. 전청대협 4기(1991/10~1992/02)에는 전국청년단체 간부수련회(1991/09/26~09/29)에서 전국청년단체협의회 건설준비위원회가 발족한다. 11월 중앙위에서는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로 명칭이 확정되었다. 전국이 아닌 한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이유는 반국(半國)적인 관점(전체 한반도적 시각이 아닌 남한만의 관점)을 지양하자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전청대협 간부의 인적 구성을 보면 대체로 NL적 인식에 기반한 활동가들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전청대협은 반제중심적 시각(NLPDR)에 입각 청년사업의 의의와 내용, 방식을 정의한다. 이들은 "한국사회는 외세가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로서 제국주의적 예속과 착취가 극심하고, 그와 야합한 매판 세력의 억압이 만연한 사회"로 규정한다. 따라서 한국 변혁운동은 민족자주화를 기본으로 한 민족민주운동이고 청년운동은 변혁운동의 대중역량 편성에서 각 계급 계층운동의 부속·지원적 지위와 역할이 아닌 각계각층과 밀접한 연관과 결합 속에서 독자적 지위와 역할을 가지는 대중운동"의 지위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청년운동은 변혁운동의 선봉대·후비대로서의 지위와 역할, 정치·사상운동의 교량자로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서의 지위와 역할 그리고 통일전선운동의 촉매자·매개자 역할을 대중적으로 실현해나갈 튼튼한 기초를 마련하는 사업(이범영 1990, 62-63)"으로 정의하고 있다. NLPDR론, 통일전선론에 근거해서 청년운동론을 정립한 전청대협과 한청협은 민청련이나 PD계열의 선도적 투쟁체, 준전위적 선진활동가 조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다. 이들은 "한국사회에서 노조, 농민회, 학생회 등은 우선적으로 노동자, 농민, 학생대중의 이해와 요구를 기본으로 하여 건설, 운용되어야 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현 시기(민족해방의 준비기) 한국 변혁운동은 민주대연합을 실현하여 민주연합 정권을 수립하는 과제가 중요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청대협 간부들은 이러한 인식에 기반해서 애국민주학교, 청년학교, 정치학교를 통해 주한미군 철수·연방제통일·국가보안법 철폐를 강조하는 한편, 범민족대회 성사를 위한 운동의 중심에 섰다. 전청대협 3기에는 조국통일특별위원회(1991년 7월)도 구성하였다.

한청협 준비위원회는 단일조직으로 발전하기 위한 활동으로 ① 중앙의 정책역량 강화, ② 한청협 기관지 발간, ③ 간부교육 강화, ④ 지역청년단체협의회 건설과 강화, ⑤ 부문위원회 건설, ⑥ 청년선봉대 건설, ⑦ 청년운동의 조직 활동 혁신을 위한 사업을 결정한다. 그리고 다양한 청년을 포괄하기 위해 ① 참가단체의 확대, ② 참관단체의 조직적 결합의 내용 수립, ③ 참관이 어려운 단체와의 다양한 형태의 단결방식 모색, ④ 해외 진보적인 청년조직과의 연대 추진 등을 결정한다.

전청대협의 창립에서 형성된 사회적 연결망의 구축으로 한청협 건설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청대협의 활동과정에서 집단목표에의 헌신과 신념, 충성심, 연대감을 형성하는 토대가 만들어졌다. 전청대협은 청년운동의 동형화(정치노선, 조직시스템, 주체형성과 재생산 방식)에

결정적으로 일조한다.

2) 한청협: 체제 개혁적 집합행동 프레임의 확산

(1) 전국적 청년조직 건설, 대중노선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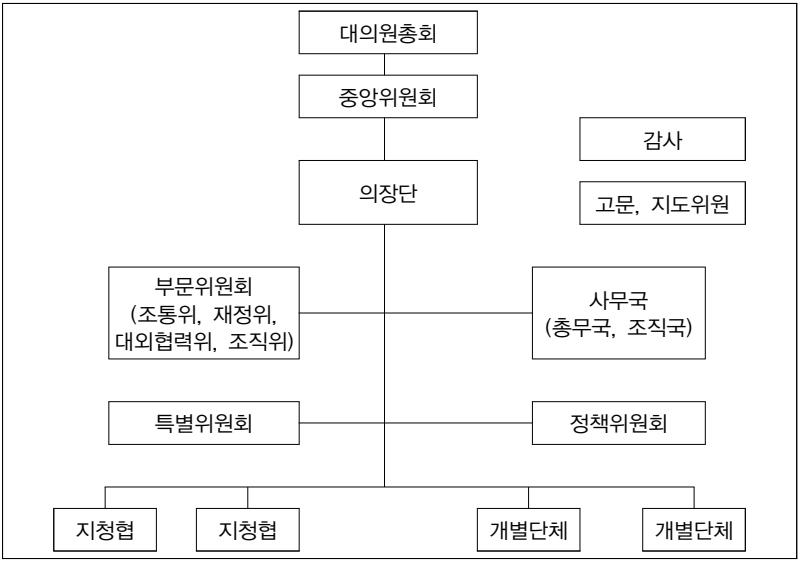
한청협은 1992년 2월 23일, 30개의 참가단체와 12개의 참관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발족한다. 당시 전청대협에서 한청협으로의 발전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그것은 첫째, 국회의원 총선과 대통령선거를 앞둔 정치일정에 대응, 조직적으로 대중운동을 전개할 구심의 구축, 둘째, 해마다 증가하는 청년대중조직을 효과적으로 집중(유기홍 편 1999, 34; 유기홍 재인용 2010, 300-301)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한청협의 출범의 가능한 조건은 자원의 다양성과 그 원천, 권위, 타 부문운동과의 관계(운동조직 간의 상호작용)와 분리하여 설명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검토될 때만 한청협의 독특한 특징을 추론할 수 있다.

한청협 결성이 가능했던 주체적 조건은 첫째, 중앙의 지도집행력이 확보되었기 때문이다. 전청대협의 중앙 간부는 의장을 포함하여 자신의 소속단체의 직책을 겸임하였지만 한청협은 전국사업을 일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근인력을 확보하였다(〈그림 1〉 참고). 이는 민청련 창립 이후 성장한 대중활동가와 6월항쟁 이후 지역 단위 청년조직의 확대에 힘입은 바가 컸다. 실제로 한청협 1기(1992/02~1993/03)에는 사무처와 정책위에 10여 명의 인력이 업무를 수행하였다. 여기에 더해 1992년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정권교체의 열망을 가진 다양한 인적자원을 투입하면서 자연스럽게 중앙과 지역 상근인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특히, NL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그림 1〉 한청협 기구표



자료: 유기홍 편(1999, 133)

열 학생운동권에서 회자된 '애국적 사회진출론'[9]은 학생운동 경험자를 청년회에 참여시키는 기제가 되었다. 애국적 사회진출론 전선운동과 부문운동의 정파적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역전선운동에서 NL의 영향력이 확대 강화되는 데 기여하였다. 지역 내 타 조직(PD계열 지역운동

9) 애국적 사회진출론은 전선 개념에서 소수의 투신 의미를 다수의 사회진출의 의미로 확장시킨 개념이다. 이는 초기에 능동성을 갖고 있었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는 학생운동의 위기를 반영하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애국적 사회진출론이 운동사회 내에서 회자될수록 민중지향적 삶과 민중지향성 이데올로기의 매력은 감소됨을 의미하였다(이창언 2009, 269). 한편, 87항쟁 이후 노동운동이 활성화되면서 노동현장 내에서의 지식인 역할도 감소했다. 이 또한 학생운동가의 청년운동 참여 요인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조직)과 노선경합의 과정에서도 운동참여자 개인들의 정체성 차원과 가치와 정체성의 세대 간 전승과 같은 사회적 차원, 운동의 접근 및 성공가능성이라는 인지적 차원 모두 반제통일전선론에 근거한 대중노선을 구사했던 한청협(산하 조직)이 유리한 조건에 놓일 수 있었다. 통일전선론은 기존의 가치관과 관행으로서 '사회적 정신(societal mentality)' 내지 '사회의식'에 근거해서 '저항행동의 틀'을 구성하는 한편 정체성 지향적 전략(identity-oriented strategy)을 구사함으로써 전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이창언 2009).

둘째, 사회 자본으로서의 신뢰가 구축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사회 자본은 구성원이 참여하고 있는 네트워크 내의 사회적 관계, 이를 통해 다른 사람이 가진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한청협의 사회적 자본의 원천은 크게 세 개의 연결망으로부터 나왔다. 그중 하나가 연대-연합운동의 과정에서 형성된 신뢰였다. 민청련 창립 이래 청년운동은 고문공대위, 민통련, 국본, 전민련 중앙 지역조직에서 가교 역할과 실무를 담당해왔다. 이 과정에서 타 부문운동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거나 그러한 감정을 지속할 수 있었다.

또 하나는 전청대협 활동의 경험을 통해 구축된 신뢰였다. 이는 새로운 청년회 네트워크로서 한청협-지청협-회원단체로 이어지는 연결망으로 전환되었다. 또 하나는 청년운동으로 이전하기 전에 활동했던 전대협(지구대협, 개별 대학)의 네트워크에서 형성된, '공유된 경험'에서 비롯된 신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은 청년-대학-지역-전선운동의 결속(Bonding)과 연결(Bridging), 복합(Both)을 가능케 한 동인이 되었다.

셋째, 한청협의 조직시스템과 표방한 목표, 활동방식의 효과라 할 수 있다. 전자가 한청협 결성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에 기여했다면 후자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는 한청협의 조직 확대로 이어지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10] 물론, 초기 한청협의 운동레퍼토리는 전청대협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것은 반제(자주통일)를 기본방향으로 하면서 주요 정치적 사안에 결합한 것으로도 확인된다.[11] 그러나 한청협은 이전 시기 청년운동과 달리 "생활터전에서 토대(창립선언문)"를 구축하는 조직노선을 선포하였다. 이러한 한청협 노선과 지향은 규약(전문, 강령, 총칙)과 창립선언문에 잘 드러나 있다. 한청협 산하 지역 청년조직은 중앙보다 더 대중적인 지향과 목표를 표명하며 지역에서 활동을 전개한다.

(2) 지역의 재발견과 정체성 지향전략

한청협의 조직시스템, 활동구조와 방식, 전략 전술관, 문화적 정향성은 지청협과 산하 단체의 활동을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수원사랑민주청년회의 창립대회(1989)에서 발표한 '여섯 가지 과제'는 한청협의 조직시스템, 활동구조와 방식, 전략 전술관, 문화적 정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첫째, 다양한 소모임 활동을 통한 건강한 공동체 건설, 둘째, 청년강

---

10) 1기 동안 참가단체가 39개로 증가하였다. 서청협과 성청협 외에 부경청협, 전북청협, 대경청협, 제청협, 남청협, 경기남부청협 등의 지청협이 결성되면서 지역청년회간 교류도 활성화되었다.

11) 한청협은 NL노선에 영향을 받은 활동가들이 다수였다. 한청협의 노선은 규약과 강령에 잘 드러나 있다.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는 각계각층에서 하루가 다르게 솟아나는 새세대 청년들의 힘을 모아 자주민주통일의 새날을 여는 선봉대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며 청년단일조직 건설을 향해 힘차게 달려 나갈 것이다"(규약 전문 중), "우리는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을 이루는 데 앞장선다"(강령 1), "우리 단체는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실현하고 각계각층 청년들의 이해와 요구를 옹호하는 것과 전국적인 청년단일조직을 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좌, 공개 독서 토론회를 통한 민족적 자긍심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 셋째, 퇴폐향락문화의 일소와 건강한 청년문화 구축, 넷째, 청년들의 사회적 권리와 지위 확대, 다섯째,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 여섯째, 조국의 자주민주통일 모색과 실천이다(수원사랑민주청년회 2007, 42).

'과제'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지역청년의 정치·사회적 권리의 향상에 관한 관심에서 더 나아간 지역사회의 공동체문화 형성, 지역연구·조사를 통해 지역발전에 대한 정책대안 수립 의지에 관한 부분이다. 한청협 산하 지역청년운동단체가 낮은 차원이지만 주민 운동적 지향을 갖게 된 배경에는 시군구 단위 주민과 청년들의 의식이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역은 대학과 달리 아직은 기존의 지배적인 문화에 대한 '대항문화적 도전(counter cultural challenge)'이 허용되는 '자유로운 공간(free space)'이 아니었다. 지역 활동의 높은 벽을 경험한 청년운동가 다수는 '청년조직을 일당 십, 일당 백의 정치조직'으로 규정했던 일부 학생운동가 출신과는 달리 "자주적 대중조직이라는 자기 위상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한청협 산하 청년단체의 조직시스템이 계급별·직능별 모임, 일상적 실천활동체계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문화·취미·교양별 대중소모임을 중심으로 운영하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이런 시스템의 구축은 청년조직의 인적 구성의 특성으로부터 기인하였다. 지역과 단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회원은 학생운동 미경험자, 직장청년이 다수였다."[12] 회원 가입도 학연(초중고), 지연(외지 출신, 향우회), 교회, 사찰, 취미동호회, 직장에서의 인연이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낮지 않았다.

대체로 청년회 참여 동기는 기존 회원과의 인간적 관계, 직장생활의

12) 전 경기남청협 의장(안양사랑청년회 전 회장) 조완기 씨 증언(2013/04/1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표 2〉 지역 청년회 참여한 동기와 요구사항[13)]

질문 / 답변자	청년회에 들어오게 된 계기	청년회 활동 후 달라진 점	1992년에 가장 하고 싶은 일	청년회에 바라고 싶은 것
정○민 (생산직반)	젊음을 조국과 함께 살고자	종교주의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주체적 인간이 되려는 점	결혼하는 것	건강한 청년들의 모임터가 되길
김○자 (생산직반)	현실을 똑바로 인식하고자	비판적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음	12월 대의원 선거에 여자가 모두 당선되는 것	우리 사무실이 있었으면…
고○산 (노래반)	잊혀질 뻔 했던 후배와의 만남으로	삶을 삶으로 볼 수가 있었고 사람을 사람으로 볼 수가 있었다	1991년에 못한 일 한 가지	항상 같은 마음이 계속되는 것
최○아 (노래반)	투정만 할것이 아니라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사고하려고 노력하는 점	운동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학습	투철해지는 것
문○인 (풍물반)	지역청년단체에서 함께 활동해 보고자	모르겠다	인간이 되려고 함	회원들이 서로 사랑했으면
박○원 (풍물반)	갈 곳이 없어서	푼수 짓을 조금 한다는 것이다	인쇄소를 인수하고 싶다	지금 모습 이상의 것은 없다
조○숙 (독서토론반)	한겨레신문에 끼어 있는 민주교실 전단을 보고	성격이 달라졌고 매사에 자신감과 여유가 생겼다. 사람에 대한 소중함도 생겼다	문예에 대한 관심이 늘었다	문제에 대한 인식만 할 뿐 풀려는 노력이 없다. 한사람이 풀어가는 것보다 함께 풀어나가면 좋겠다. 학습도 했으면 좋겠다
오○섭 (독서토론반)	운동에 조금이나마 일조하고자	성실해지고 차분해짐	장가가는 것	서로에게 조금 더 사랑하기
전○숙 (사무직반)	주위 사람의 성원으로	생각을 적극적으로 말하게 되었다	결혼	솔선수범하는 것

동○헌 (사무직반)	연사국장과의 개인적 친분관계	바빠짐, 생각도 많아지고 매사에 성실하려고 노력하게 됨	애인 만들기	진보세력 연대의 선봉에 서기

자료: 수원사랑민주청년회(1992, 31-36) 재구성

무료함과 소외감을 해소할 모임의 필요성 등 이념보다는 관계와 실존의 문제가 더 크게 작용했다. 운동에 관한 관심도 이론적인 것보다는 배제된 삶에 대한 연민, 부채감, 공감 등 정서적인 측면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저항의 문화적 자원으로서 공동체성과 민중성을 발견-연결하려는 다양한 시도는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청년회 공식, 비공식 모임에서 동료와의 정서적 유대와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거나 폐기되었다. 청년회원들은 소모임 활동, 문화행사, 공개강좌, 집회의 기획과 준비, 참여과정에서 한국사회 위기와 고통의 원인 제공자(외세와 예속정권)에 대한 도덕적 분노를 수용하였다(불공정 요소, injustice component). 나아가 자연스럽게 민중과 역사에 대한 단선론적 시각(주체자 요소, agent component)과 적과 아를 정의하는 정체성(정체성 요소, identity component)을 구성해 나갔다. 다시 말해, 민중 지향성, 도덕성, 공동체주의, 인본주의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나갔던 것이다. 대부분의 지역청년회는 노래공연, 민주교실, 풍물교실, 직장청년교실, 지역 통일한마당, 통일맞이 자전거 대행진 등의 활동을 통해 회원을 포함 지역주민과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해나가고자 했다.

---

13) 〈표 2〉는 수원사랑민주청년회 회보 〈통일매〉 제15호 '선전부에서 물어보았습니다'의 질문 내용과 답변을 그래도 표로 옮겨 놓은 것이다. 답변자는 총 10명이었다. 표에는 기입하지 않았지만 선전부의 질문에는 가장 존경하는 선배·후배, 별명·취미·특기, 애인 유무와 바라는 이성상, 지금 가장 절실한 소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3. 한청협의 활동과 분화: NL 내부의 틀 분쟁(frame disputes)

1) 한청협의 시기별 활동과 내적 긴장과 갈등

한청협 1기에 집중한 활동은 1992년 대통령선거에서 '범민주단일후보를 통한 민주정부수립'이었다. 한청협은 '4천만 대합창'의 문화선전활동, 청년신문과 스티커 배포 등 홍보활동, '참여하자, 감시하자, 꼭 바꾸자'의 신세대 3대 운동, '영호남 청년 한마당' 등의 활동을 전개한다. 이와 함께 5월투쟁, 8월 범민족대회 참가 조직 사업을 전개한다.

한청협 2기(1993/03~1994/03)는 조직사업 목표로 대중기반 강화, 내실화, 지청협 강화를 제시했지만, 외형상의 조직규모 확대 외에는 성과가 크지 않았다. 범민족대회로 의장, 부의장 집행간부가 구속되어 중앙지도집행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한청협 내부의 갈등과 분화 조짐은 이 시기에 이미 싹트고 있었다. 한청협 2기는 대선 패배 이후 이완된 조직력을 회복하고 청년운동과 민족민주운동의 전망을 타진하는 시기였다. '청년의 미래를 열어가는 소위원회(이하 소위)'를 구성해 청년운동의 과제를 점검하였으나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소위의 활동에서 제언된 과제는 한청협 해소에 이르기까지 내부 활동가의 인식과 실천에 큰 영향을 미친다.[14)]

---

14) 소위의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다. "최근 우리가 겪고 있는 변화는 단지 정치적인 변화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활과 의식에서부터 우리 사회의 여러 구석에 이르기까지 변화의 폭은 넓고 그 영역은 다양합니다. 우리는 그 변화의 양상을 종합하고 그 본질을 파헤쳐 능동적인 대응을 준비해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중략) 앞으로 우리 대중운동의 기본방향은 가정, 직장, 사회, 민족 등을 통일시키는 대중운동으로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생활인들 다수의 관심은 개인과 가정에 제한되었고 좀 더 나가면 직장문제에 머물렀으며 반면 사회운동은 개인, 가정, 직장의 생활문제에 기반을 두지 못하고 사회, 민족

한청협 3기(1994/03~1995/03)에는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분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전국연합과 지역연합은 점차 약화된다. 역설적으로 전국연합과 지역연합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 한청협의 책임성과 위상이 올라간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을 책임질 수 있는 내부적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한청협은 내부역량 강화를 핵심과제로 설정한다. 한청협은 간부의 안정화, 조직사업의 과학화를 시급한 과제로 제출한다. 한편, 이시기 전국연합을 비롯한 민족민주운동진영은 대선 패배의 후유증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직진로와 전망을 도출하기 위해 조직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조발특위는 5차례의 회의와 토론회를 개최하였지만 정치조직 건설을 둘러싼 내부 논쟁이 격화되면서 합의도출을 이루지 못한다.

전국연합의 조직적 진로모색이 난관에 부딪힌 상황에서도 한청협 가입 단체 수는 꾸준히 증가한다. 이 시기 한청협은 총 46개 단체가 참가하고 24개 단체가 참관하는 규모로 발전하며, UR 국회비준반대투쟁에 참여한다. 여기에 더해 범민족대회, 통일운동의 대중화를 위한 논의를 주도하면서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결성에 결정적 기여를 한다. 그러나 이는 전선운동과 한청협 내부의 균열과 분열의 전조로 작용하기도 했다.

한청협 4기(1995/03~1996/03)는 조직 내적으로는 정체양상을 극복하는 것, 새로운 통일운동체 건설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사상적 동요를 극복하는 것, 시군구 단위 지역 청년회 건설과 지역에서 청년회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결의한다. 한편, 통일운동의 일상화·지역화, 한청협 간부들의 사상적 통일과 평생 동지적 결속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한청

문제에만 치중했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가정, 직장, 사회, 민족의 발전에 대한 생활인들의 관심과 요구를 통일시키는 운동이 나와야 하겠습니다."(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1993)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협 주류는 통일운동이 대중화를 강조하는 한편 하나의 통일행사를 성사시키기 위해 내부 힘을 집중한다. 이 시기 지역에 토대를 갖는 청년운동을 위해 실천소모임에 대한 다양한 실험과 지역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획이 시도된다. 민청련 시절 발간된 〈민주화의 길〉에 이어 1993년 기관지 〈한국청년〉, 1995년 소식지 〈청년통신〉, 1996년 기관지 〈자주의 길〉이 발간되었다. 한편, 중앙상임위원 연수와 지청협 순회 연수 등이 실시된다. 과거 전통적 NL노선을 발전적으로 혁신하려는 노력은 다양한 형태의 청년 연대를 통해 구체화된다. 한청협은 전국연합은 물론이거니와 6·27 지방선거를 앞두고 '참여와 자치를 위한 청년캠프'를 구성해서 활동한다. 그 결과 캠프에 소속된 청년후보 60명 이상이 당선되는 성과를 낸다. 이어 5·18 학살자 처벌을 위한 청년연석회의를 구성하여 5·18 특별법 제정을 중앙과 지역에서 전개한다. 이 두 연대활동은 중앙과 지역차원에서 한청협의 영향력은 물론 관계를 확장하는 데 기여한다. 그것은 민중운동과 시민운동, 운동정치와 제도정치 차원에서 과거와 다른 접점을 만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전국청년단일조직 건설이라는 본래의 지향에도 부합했지만 변화된 상황에 조응하는 운동방식이었다.

한청협 5기(1996/03~1997/03)는 대중정당과 전국청년단일조직 건설을 위한 토대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54개 참가단체, 20개 참관·유관단체로 성장하였지만 야당과 시민운동단체에 비하면 정치적 영향력은 미미했다. 여기에 더해 정치조직과 통일운동체·통일행사를 둘러싼 내부 논쟁으로 조직은 확대되었지만 집중성은 약화되었다. 범민족대회 사수라는 내부 강경파와 대중적 통일운동의 방식을 강조한 한청협 지도부의 긴장이 지속되었다. 한청협 지도부는 후자의 방식(북한수해동포돕기운동)으로 통일운동을 전개한다.

새로운 정치지형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한청협 지도부는 4·11 총선에서 3명의 후보(함운경, 정형주, 박형룡)를 출마시켜 평균 8%의 지지를 확보한다. 이 과정에서 대중운동, 일상적 정치운동에 대한 무게가 실리지만 전선강화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었다. 내적 긴장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청협은 전국연합과 함께 '노동법·안기부법 개악 철회를 위한 투쟁'을 지역-중앙차원에서 전개한다. 이 시기, 한청협은 청년회의를 구성하여 정치조직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지만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다만, 이러한 모임의 축적은 이후 한국청년연맹(준), 한국청년연합회 건설의 밑거름이 된다(유기홍 편 1999, 34-40).

2) 통일운동 논쟁—반제프레임 재검토

1987년 6월항쟁과 7, 9월 노동자투쟁으로 급속히 성장해간 민중운동은 1989년 봄 공안정국을 기점으로 둔화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 들어 침체 양상을 보였다. 그것은 사회적 역관계, 사회적 적대와 갈등의 내용과 방식, 지배세력과 보수야당의 구성과 정책, 피지배연합의 구성과 전략이 변화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1990년대는 한청협과 그 산하 조직은 변화된 정치지형에 대응하는 새로운 행위전략 수립을 수립하는 과제에 직면한다.[15)]

한청협 지도부가 보는 한국사회의 구조변동은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그것은 첫째, 국내 정치, 사회지형을 근본적으로 규정해온 냉전적 분단질서의 변화, 둘째, 한국자본주의가 기존의 개발독재유형의 종속적인 국가자본주의에서 대외(미·일) 종속적 자본주의로 변화, 셋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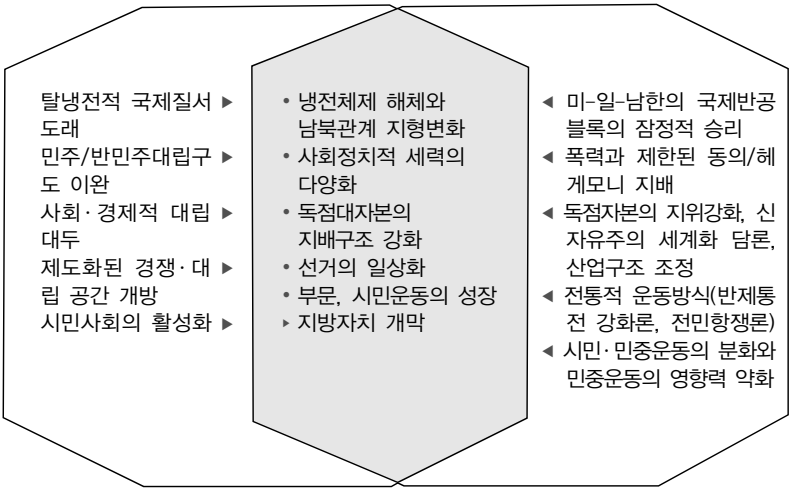
15) 민주항쟁 이후 사회운동의 변화와 그 특성에 대해서는 조희연(2004)의 글을 참조하라.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외세의 정권개입과 통치방식의 변화, 넷째, 통치방식의 변화와 더불어 합법 공간의 확대, 다섯째, 한국사회 토대의 변화를 배경으로 각계 대중운동의 활성화와 새로운 단계로 발전이라 할 수 있다(김현배 1995, 40-45). 따라서 이러한 변화는 운동세력에게 과거의 단선적인 정치접근이 아니라 다양화되고 중층화된 대중의 생활적 요구에 부응하는 운동방식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과제를 부여한다는 것이었다.

한청협 지도부는 통일문제의 지형변화에 능동적인 대응, 지난 시기 통일운동에 대한 혁신을 강조하였다. 사실, 1990년대는 국제질서뿐만 아니라 남북한 역관계, 북한의 통일과 대남전략이 급격히 변화하는 시기였다. 1990년대 국제적 측면의 기본 특징은 미-일-남한의 국제반공블록이

〈그림 2〉 1990년대 중후반 한청협의 기회와 도전 요인



소련-중국-북한의 국제반미블록에 잠정적인 승리를 거둠으로써 역관계에서 우위를 점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미·소의 냉전적 대립을 축으로 하는 동북아질서는 미·일 상호협력과 경쟁을 중심으로 하는 탈냉전적 질서로 변해나가면서 남북한의 교차승인이 현실화된다. 그 결과 1990년 한소수교, 1992년 한중수교, 91년 9월 북한의 유엔 동시가입, 92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과 발효가 선언된다. 1990년대 통일지형의 또 다른 특징은 전략적 균형상태의 측면에서 남한의 전술적 우위가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6공화국 이후 남한정권의 통일과 대북정책은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성격을 보여주었다. 국제정세의 변화과정을 포착하여 적극 추진된 북방정책은 북한보다 외교적·경제적 우위와 자신감을 획득, 공세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 1990년대 남한 정권의 통일·대북전략이 결코 소극적인 분단 고착화, 국제적 합법화에 있지 않음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이에 비해 북한은 유엔 동시가입, 고려민주연방제 통일방안의 수정, 조국통일(전국혁명의 과제)과 북한사회주의체제의 강화(지역혁명의 과제)의 통일적 추진으로 전환한다. 기존의 전략적 기조가 국제적 조건과 남북한 역관계의 변화과정에서 지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결국, '전국 혁명적' 과제와 '지역 혁명적' 과제가 괴리되어 오히려 '전국 혁명적' 과제의 추진이 '지역 혁명적' 과제를 질곡—북한의 고립, 압박으로 체제 불안 가중—하고 있음을 현실적으로 인정한 것이다(안식 1993, 267-279; 이창언 2013, 194 재인용). 1990년대 이후 북한은 통일보다는 오히려 북한체제 유지와 강화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변화에 남한의 통일운동도 능동적인 변화가 필요했던 것이다.

통일운동을 둘러싼 한청협 내부의 갈등은 통일지형의 변화가 내포한 통일운동의 정치방침, 통일방안, 3자 연대, 통일운동 진영의 단결 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제를 둘러싼 시각 차이를 반영한다. 문익환 목사를 비롯한 전국연합과 한청협 내부의 '새로운 통일운동체' 주창자들은 통일 주체세력을 형성하기 위해 통일 개념과 의미에 대한 재조정과 사회적 합의의 확산을 강조한다. 여기서 대북관의 변화는 대중적 통일운동을 위한 전제로 제시된다. 이들은 조국통일이 민족의 단순한 단합의 실현을 넘어 상호변화를 통한 항구적 공영을 도모하는 것이라 할 때, 상호공존을 위협하는 것이라면 그 어떠한 체제라도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들은 통일운동에서 대중화를 저해하고 이분법적(통일/반통일) 사고를 심화시킨 원인 중 하나가 북한을 대안체제로 인식해온 운동진영의 편향적 사고를 문제 삼았다. 이들은 아직 친북적 이미지로 남아 있는 연방제를 대중적 구호로 제기하는 대신 대중이 통일문제를 깊이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계기를 마련하고, 이 공간에서 공존, 공영, 흡수통합의 반대 원리를 공유하면서 연방제로 개념화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남·북·해외 실정에 맞는 3자 연대를 통해 남한의 통일역량을 보존하며 통일운동에 대한 대중적 거부감을 해결해 나갈 것을 주장한다.

남·북·해외의 3자 연대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남한 통일운동의 준비정도와 남한의 정치현실(법적·제도적 제약)을 고려하여 계획적으로 추진되면서 대중의 통일의식 성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3자 연대는 연대 대상의 상이한 역량과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3자의 다른 상황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며, 상황변화와 필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탄력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미근본주의 비판도 같은 맥락에서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통일운동체(이하 새통체)' 주창자들은 주한미군 철수를 목표로 하되 미군기지반환운동과 한미행정협정 개정운동 등과 같이 대중적인 반미운동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전략적인 반미주장에서 탈피하여 생활상에서의 민족자주의식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

는 것이다.

한청협 내부의 의견 대립은 1995년 8·15 민족공동행사를 전후한 과정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범민련의 발전적 해소와 새로운 통일운동체의 건설을 위한 노력은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민족회의)'의 창립으로 이어지게 되고, 통일운동 진영에서는 민족회의와 범민련, 대중적 통일행사와 범민족대회로 크게 나뉘는 인식과 실천의 편차가 조직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다(〈표 3〉 참조). 전통적 NL계열은 보다 적대적인 프레임에 기초한 행위동원전략을, 새통체나 대중적 통일운동을 강조한 세력은 합의적 프레임과 합의동원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보인다.

〈표 3〉 통일운동을 둘러싼 프레임 분쟁

집합행동 프레임		A	B
진단적	원인 진단	• 미제와 김영삼에 의해 자행된 전쟁책동과 경제봉쇄	• 87항쟁 이후 정치지형-통일운동 지형의 변화
	이슈	• 주한미군철수투쟁의 전면화 • 북미평화협정 체결 • 연방제 통일방안의 전면화	• 생활상에서의 민족자주운동의 지평확장(미군기지 반환운동, 한미행정협정 개정운동) • 남·북·미 3자 평화협정체결 • 공존·공영·흡수통합 반대의 논리 확산
처방적	대안	• 남북해외 민족대단결 • 반미 반 김영삼투쟁 강화	• 북한에 대한 편향(반대와 옹호) 극복 • 통일 개념과 의미에 대한 재조정과 사회적 합의의 확산
	주체	• 범민련강화 • 범민족대회 강행	• 남·북·해외 실정에 맞는 3자 연대 • 대중적 통일행사
집합행위프레임		• 체제 변혁적(전민항쟁)	• 체제 비판적·개혁적(정치조직-사회운동)
		• 행위동원전략	• 합의동원전략

자료: 이창언(2011a) 재구성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남한 민족해방(NL)파[16] 내부의 갈등은 범민련 남측본부가 8·15 공동행사와는 별도의 범민족대회를 치르는 과정에서 최고조에 달한다(이창언 2009; 2011b 재인용). 범민련 강화론은 조문과 주사파 파동(1994), 두 개의 통일행사(1995), 연세대 사태(1996)를 거치면서 대북적대정책을 강행한 김영삼 타도, 전민항쟁노선을 전면화한다.[17]

3) 정치조직 논쟁－전민항쟁(전민중적총궐기/체제변혁) 프레임 재검토

6기 한청협은(1997/03~1998/01) 대선 시기 전국연합 후보전술을 둘러싼 내부 이견이 심화되어 결국 중앙과 지역 청년조직은 분열한다. 이는 후보전술로 외화되었지만 본질적으로 정치조직을 둘러싼 내부갈등에는 첫째, 한국사회 성격에 대한 인식의 차이, 둘째, 반미-반김영삼, 대중투쟁에 대한 인식 차이, 셋째, 전선과 당의 관계에 대한 인식에 관한 본질적인 이견이 존재했다. 전국연합 내의 정치조직 논쟁은 크게 세 차례 있었다. 1992년 대선을 전후로 한 정치적 국민운동체 논쟁, 1995년 하반기 전국연합 조직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전개된 정치조직 건설(현대적 국민정당론) 논쟁, 1997년 국민승리 21 출범과 대선 방침을 둘러싼 논쟁이 그것이다(이창언 2011a).[18]

---

16) NL의 정의, 특징, NL의 등장과 분화과정은 이창언(2011b)을 참고하라.

17) 범민련-한총련 주류가 전통적 통일운동방식, 반미-반김영삼이라는 강경한 입장에 선 이유는 북미·남북 관계가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제기된 위기의식과 함께 북을 배려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었다. 사실 1994년 6월 13일 북한의 IAEA 공식 탈퇴, 6월 15일 빌 클린턴 미 행정부의 북한 핵시설 폭격까지 포함하는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 발표로 긴장은 극에 달했다.

18) 전국연합의 정치조직 논쟁은 이창언(2011a)의 글을 참조하라.

한청협은 정치적 국민운동체의 건설 논의와 관련해서는 심각한 내부논쟁을 거치지는 않았다. 당시만 해도 집권전략으로서 전민항쟁 노선이 여전히 다수를 점하고 있었다. 한청협 간부들은 정치적 국민운동체 건설이 민주대연합과 연합전선운동의 약화와 소멸로 이어질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대선 패배 이후 지도집행력이 약화된 전국연합을 고려, 정치조직 건설이 자칫 전국연합의 정치적 실무집행역량의 이중화, 실무집행역량의 비효율적 배치를 낳고 대중투쟁의 약화로 귀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나아가 새로운 정치조직 건설 주창자들이 말하는 새로운 정치조직의 상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전국연합 초기의 정치조직 논의가 사회운동이 부딪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이념과 조직적 대안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지만, 상층명망가가 중심의 논의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정치조직에 대한 불신만 확산하고 그 의의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 그러나 '소위'가 전면에 내건 "변화하는 세계, 혁신하는 한청협, 대안으로 성장하는 신세대"란 모토는 일국적 저항, 반미통일운동에 익숙했던 한청협 성원들의 정서에 부합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변화의 강조, 생활세계 지향적 운동을 일종의 개량주의로 치부하는 흐름이 존재했던 것이다.

이로써 정치조직 논의를 통해 한국자본주의 성격과 김영삼 정권의 통치 방식에 관한 판단, 의회선거가 대중투쟁에서 차지하는 비중, 한국 사회운동이 처한 조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나아가 정치조직의 상과 건설경로에 대한 부문에서는 오히려 후퇴 내지 답보하게 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정치조직의 건설과 대중운동의 계급적 단결과 계급정치로의 진전을 어떻게 보장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심화될 수 없었다.

그러나 전국연합 조발특위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정치조직은 초미의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관심사로 대두한다. 당시 지도부는 “민족민주 단일정당론”에 기초한 전선재편의 상을 갖고 있었으며, 4·11총선 이후 정책위를 중심으로 현대적 국민정당론(진보적 개혁정당)을 제기했다.

이 시기 등장한 정치조직 건설론은 기존 방침에 대한 재검토에 근거한 평화이행의 기조에 부합하는 조직 편재, 기존의 정치조직 건설과정, 상과 경로의 차별성이 강조한다. 이 논의는 민족민주전선의 현황 분석, 정치조직 건설의 필요성과 방향, 정치조직의 건설을 위한 사업과제라는 논리적 틀로 정치조직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정치조직 논의는 부분운동의 성장과 발전, 정치적 대표체로서의 전국연합의 입지 축소를 강조한다. 그러나 합법독자정당에 대한 NL의 거부감을 고려한 듯 정치조직의 상과 성격을 대중운동이 주체가 되는 연합전선과 민족민주운동을 정당적 차원으로 전개할 정치조직(정당)이며 정치조직의 성격은 계급정당이 아닌 본질적으로 단일한 성격을 지닌 전선체(이승환 1995, 18)로 규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적 대중정당 건설 논쟁은 본질적으로 사회조건과 대중운동의 변화에 따른 전략적 노선의 재정립 문제로 연결(이승환 1995, 12-15)되었다.[19] 그것은 기동전적 전략모델의 한계와 문제점을 집약하고 있는 NL론의 전민항쟁 노선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한청협은 기관지『자주의 길』에서 1호(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1995)에서 전면적으로 정치조직 건설을 전면화한다.[20]『자주의 길』2호(한국

---

19) 현대적 국민정당 건설에 대한 초기의 문제의식은 이승환, 〈민족민주운동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올바른 관점〉 전국연합 통신 76호(1995/11/07, 32-36)를 보라. 그리고 정치조직을 둘러싼 NL내부의 담론경쟁은 이창언(2011b)을 참고하라.

20) 민족민주운동의 총체적 발전전망과 향후과제(한청협 이승환 부의장), 민족민주운동을 둘러싼 주, 객관적 정세변화(김현배 전국연합 정책실장), 새로운 정당을 건설하자(김영환 푸른

민주청년단체협의회 1996a)와 3호(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1996b)도 정치조직 건설은 주요 화두였다. 그러나 내부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자주의 길』 4호(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1996c)에서는 강철 김영환을 비판하는 정대연의 "시대정신문답을 다시 비판한다" 외에 부민청 박장홍의 "민족민주운동의 정치세력화 그 출발점을 분명히 하자" 등 반론도 제출되었다.

경기남청협(의장 조완기) 등 지청협은 민족민주운동세력이 자신의 독자적 세력화에 기초한 민주연합 → 평화적 이행에 기초한 합법적 대중정당 건설에 동의한다. 그러나 NL계열 내부에 존재하는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의 부족, 근원적으로는 반제통전론의 전통으로 인해 크게 탄력을 받지는 못한다. 이들은 정치조직 건설이 반미-반김영삼 투쟁을 이완시키고 통일전선을 약화시키는 개량주의적 노선으로 규정·비판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청협(내적)과 전국연합-지역연합-부문운동(외적)에서 동시에 제기되었다.

정치조직 무용론(내지 시기상조론)은 NL의 정통노선과 반미-반독재투쟁의 명분을 앞세우며 정치조직 건설의 위험성, 무용론, 역효과론을 설파했다. 이에 대응한 정치조직 건설론은 시대상황 변화와 그에 따른 혁신을 앞세우며 정치건설의 긴급성, 행동성, 성공가능성 담론을 구사하였다. 전국연합-한청협 내부에서 진행되는 틀 분쟁은 구성원 간의 연대감과 반대자에 대한 적대감에 기초하였다.

이 논쟁은 상호 간 불신과 감정이 골을 깊게 만들었다. 그 결과 전국연합과 한청협 내부에서는 정치 조직 혹은 진보정당에 대한 상과 건설경

사람들 연구실장), 좌담-민족민주운동이 현황과 정치조직건설논의의 방향 점검 등이 그러한 지향을 잘 드러내고 있다.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로, 선거방침을 둘러싼 그 어떤 혁신안도 수용되지 못했다. 1997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민승리21에 대한 전국연합 대의원대회 방침의 변화[21]는 민주 반민주대립구도라는 낡은 시각만을 확인해주었다.

이러한 내적 인식의 차이와 감정적 격화는 7기(1998/01~1999/06)로 이어져 "한청협 사상 첫 의장단 경선으로 나타난다. 전통적 NL 청년회와 혁신을 내건 유기홍 후보단의 경선이었다. 결국 유기홍 후보단의 승리였지만 이미 지도력에 대한 신뢰는 약화된 상태였다(조완기 구술 2013/04/10)." 이에 따라 지역청년회도 내부 이견과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한청협 산하 조직 내부의 긴장과 갈등도 커졌다. 일부 지역 NL계열은 "정치적 투쟁과 청년조직의 위상에 대한 과도한 설정, 대중조직이 아닌 활동가조직으로 전환하면서 회원들을 이분화시켰다. 청년회 안에 또 다른 청년회가 활동하는 비상식적 모습이 나타났다. 이는 곧바로 다수 회원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고 결국 98년 1월 총회를 통해 지도부는 교체(유문종 구술 2012/12/20)"되는 일도 발생한다.

혁신을 위한 실험이 실패한 이후 한청협 지도부는 국민승리21에 참여하는 한편 청년정보문화센터, 전대협 동우회 등과 청년단일조직 건설 논의를 진행한다. 그리고 1997년 대선을 전후로 국민승리21에 참여한 푸른21의 개별청년들과 조직구성을 합의한다. 이어 한청협 제4차 중앙상임위에서 '자치와 통일을 위한 전국청년단일조직 건설 발기문'의 채택과 전

---

21) 1997년 2월 22일 전국연합 6기 대의원대회에서는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어 동년 6월 14일 전국연합 대의원대회에서 우리후보 방침을 결정한다. 그러나 1997년 11월 23일 개최된 전국연합 6기 2차 대의원대회에서는 국민승리21 후보가 민주적 정권교체와 야권후보 단일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결정함으로써 사실상 야당 후보를 지지하며 대선에 임하게 된다.

국청년단일조직 건설추진위가 구성된다. 1998년 6월 12일에는 한국청년연맹 준비위가 구성되는 한편, 1998년 9월 20일 한청협은 대의원 대회를 통해 발전적 해소를 결정한다.

한청협이 해산되는 과정에서도 운동노선과 조직운영의 문제를 놓고 내부적 진통이 뒤따랐다. 1999년 2월 결성된 한민청(준)과 서청협, 인청대련, 그리고 대구·경북과 광주·전남 등지의 청년단체들이 1999년 6월 12일 민족의 자주통일과 민중생존권 보장을 위한 청년연석회의(약칭 청년연석회의)를 결성하였다. 그리고 2001년 2월 11일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를 창립한다. 한청협 해소에 앞장선 청년운동가들은 한국청년연합회(KYC)를 창립한다.[22] 이들은 한국청년연합회(KYC) 발족을 "정보사회, 세계화 시대, 통일의 시대, 자치의 시대, 신문명이 도래하는 시대, volunteer 정신에 입각한 운동노선(정의적 프레임)으로 변화한 것"으로 평가한다. 한청협 해소에 반대한 활동가들은 이를 청년운동의 시민운동화, 제도정치로 진출하기 위한 과정(관계적 프레임)으로 보는 등 시각차이가 존재한다.[23]

---

22) 한국청년연맹(한청) 준비위원회는 1998년 11월 4일 청년세대 대통합 추진모임을 결성하고 다음해 1월 6일 새로운 청년대중조직 건설 추진모임으로 확대 개편한다. 1월 27일 한국청년연합회 건설추진위원회, 3월 7일 한국청년연합회 창립준비위원회를 거쳐 1999년 6월 12일 한국청년연합회(KYC: Korea Youth Corps)를 창립한다.

23) 한청협 해소 반대 입장은 박홍근·이승호·성차남(2003, 349-361), 전상봉·송현석(2004, 604-606)을 참고하라.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4. 마치며

지금까지 1990년대 전국적 청년운동조직의 중심이었던 한청협의 등장과 성장 분화과정을 집합행위프레임을 통해 살펴보았다. 한편, 한청협의 성격과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한청협 이전의 청년조직과 한청협의 활동을 개괄적으로 비교를 시도하였다. 동형화되고 전국적인 운동조직의 출현, 해석 틀의 전환은 이를 유리하게 해 준 정치적 기회의 수준을 반영한다. 그러나 거시구조적 사회변동에 대한 설명만으로는 내적 동학을 해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글은 한청협의 집합행위프레임과 프레임 공명, 틀 분쟁을 올바로 포착하고자 참여자의 주관적 의미 형성과정과 정치적 기회구조를 저항운동으로 조직할 수 있는 대인간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정치적 조건의 변화는 의식해방의 과정을 촉발 가능케 하는 '인식의 단초(cognitive clue)'를 제공하지만 집합적 정의를 촉진하는 힘인 인지적 해방은 사람들이 맺고 있는 관계망과 정서적 유대가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사회운동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저항자들이 효과적으로 '정치적 기회구조'를 사회적 저항의 조직화된 운동으로 전환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전환의 조건이 바로 소공동체 내에서의 조직화 정도를 의미하는 청년회 공동체 내외의 네트워크나 공동체 내지 본래부터 존재하는 소규모 조직의 힘이다.

민청련-전청대협-한청협으로 이어지는 청년운동의 대중적 지향, 전선운동을 통해 형성된 유연성과 관계구조, 운동의 경험이 일천한 지역청년을 주요구성부분으로 하는 시군구 청년운동의 내부 시스템에 관한 분석을 시도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청협의 틀 분쟁과 조직 분화는 한국사회 구조변동, 사회성격의 변화와 사회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둘러싼 인식의 차이를 반영한다. 나아가

한국 사회운동 레퍼토리 변화의 전환점이 되는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돌이켜보면 전국연합-한청협 내부의 새로운 운동모델 구축을 위한 실험은 변화된 국내외 정치지형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었다. 1990년대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독점대자본의 지배구조의 강화라는 위기와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적대가 주요한 의제로 부상하는 한편, 시민운동이 활성화되고 제도화된 경쟁과 대립공간이 개방되는 기회의 시기였다. 따라서 급진적 민주전선을 한축으로 정치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제도적 기반(정치조직-정당)을 조성하는 노력이 요청되는 시점이었다. 따라서 한청협은 두 개의 프레임 분쟁과정을 급진적 지향의 내포·심화와 외연의 확대의 기회로 활용해야 했다. 다시 말해, 새로운 시대정신에 기초하여 대항 헤게모니 재정립을 모색하는 실천으로 이어져야했다. 그것은 체제 극복의 전망 하에 현실의 민주주의를 급진적으로 재구축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적대로 환원되지 않는 다원적 적대의 인정과 새로운 대립전선과 저항연합을 형성하는 것이어야 했다. 그리고 기존의 '제도와 비제도', '정치영역과 운동영역' 등의 이분법적 구분을 넘어선 기획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전기가 되어야 했다. 그러나 한청협은 그런 기회를 창출시켜 소기의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한청협 프레임 분쟁은 정치노선의 차원에서 볼 때 반제·통일 프레임의 현실적합성과 대안전략에 대한 재검토를 둘러싼 최초의 내부 문제제기였다는 점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프레임 분쟁과 혁신의 노력은 주변부민족해방론(NL)의 이탈이라 할 정도로 강렬한 것이었다. 현재적 관점에서 본다면 한청협 프레임 분쟁은 주체사상과 NL론이 자본주의 세계체제와 남한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NL진영 최초의 집단적·공개적 문제제기였다. 경합과 각축은 정치조직과 대중적 통일운동체에 대한 이견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로 표출되었는 바, 전자는 '민주대연합'을 진보정치 프로젝트의 핵심의제로 설정한 전통적 정치노선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 할 수 있다. 후자는 통일운동의 방식(3자연대)으로 대립각이 설정되지만 이후 주체사상(수령관, 후계자 문제)과 북의 대남전략에 대한 비판적 인식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한청협 내부의 프레임 분쟁이 근대주의적 저항담론에 대한 비판, 다원성·소수성의 정치와 주체형성의 과제까지 담아낸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최소한 비주체적인(주사파적)인 현실분석과 NL론의 남한 내 적용의 적실성에 대한 의문이 집단적으로 드러난 것은 사실이었다. 한청협의 성장과 프레임 분쟁은 전환기 한국사회의 주변부민족해방론의 성공의 조건, 혁신의 노력과 실패, 사회운동의 변화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승호. 2012. "민주노총의 총선대응과 정치세력화: 평가와 방향." 참여사회연구소.『시민과 세계』 21.

김영경. 2010. "청년운동, 새로운 노동운동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참여연대.『복지동향』 통권 제139호.

김현배. 1995. "민족민주운동을 둘러싼 주, 객관적 정세변화."『자주의 길』 창간호.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노명우. 2004. "청년위기의 불평등 분배."『문화과학』 통권 제37호. 문화과학사.

민 영. 1996.『사회운동조직의 집합행위 프레임, 미디어전략, 의제형성능력에 관한 비교연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언론학과 석사논문.
박재흥. 2001. “세대연구의 이론적·방법론적 쟁점.”『한국학연구』 제24권 제2호.
박홍근·이승호·성차남. 2003.『청년 및 학생운동의 현황과 과제』. 시민의신문.
수원사랑민주청년회 동우회 편. 2007.『수원사랑민주청년회 12년의 발자취를 찾아서』.
수원사랑민주청년회. 1992.『통일매』 15호(1992/01/01).
신진욱. “사회운동, 정치적 기회구조, 그리고 폭력: 1960-1986년 한국 노동자 집단행동의 레퍼토리와 저항의 사이클.” 한국사회학회.『한국사회학』 38권 6호.
안양사랑청년회. 1995. “안사청에 들어와서.”『안양청년』 95-1.
안 식. 1993.『현대화, 혁신 그리고 연대』. 나라사랑.
유기홍 편. 1999.『한청협 10년사』. 한청협전국동지회.
유기홍. 2010.「1980년대 민족민주운동과 민주화운동청년연합」.『기억과 전망』 23호.
이범영. 1990.『90년대 한국 청년운동론한국 근현대 청년운동사』. 청년사.
이승환. 1995. “민족민주운동의 총체적 발전전망과 향후과제.”『자주의 길』 창간호.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이창언. 2009.『한국학생운동의 급진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학과 박사논문.
_____. 2011a.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과 정치조직 논쟁: 반제 통일전선 전통의 복원과 정치세력화의 지체.”『기억과 전망』 통권 24호(2011 여름호).
_____. 2011b. “민족해방(NL)노선의 확산과 진보정치운동의 지체: 거중연합(居中聯合)과 전민항쟁노선이 낳은 진보정치의 지체와 왜곡.” 조현연 외.『한국진보정치의 역사와 쟁점』. 한울아카데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_____. 2013. “남북한 핵무장론에 대한 비판과 비전 평화운동의 과제.” 『진보평론』 제57호.

전상봉. 2004. 『한국 근현대 청년운동사』. 두리미디어.

전상봉·송현석. 2004. 『1980-1990년대 청년·학생운동사』. 시민의 신문.

조대엽. 2002. “386 세대의 문화와 세대경험.” 임희섭 외. 『한국의 문화변동과 가치관』. 나남출판.

_____. 2005. “한국 민주화운동의 쇠퇴와 정치적 기회구조.” 『동북아연구』 2.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_____. 2007. “제1부 거대전환의 사회변동과 시장·시민사회.” 『21세기 한국의 기업과 시민사회』. 굿인포메이션.

조희연. 1998. 『한국의 국가·민주주의·정치변동』. 당대.

_____. 2001. 『NGO가이드』. 한겨레신문사.

_____. 2004. “민주항쟁 이후 사회운동의 변화와 그 특성: 4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시민의 신문. 『한국시민사회운동 15년사 1987-2002』.

조희연·이창언. 2013. “대안정치성의 접합경쟁, 안철수 현상, 이정희 효과.” 비판사회학회. 『경제와 사회』 통권 제97호.

청년세대의 진로 편집부. 1998. 『청년의 진로』. 청년세대.

최철웅. 2011. “청년운동의 정치학.” 『문화과학』 통권 제66호(2011년 여름). 문화과학사.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1992. “한청협 창립선언문”(1992/02/23).

_____. 1993. “청년의 미래를 열어가는 소위원회 종합보고서”(한청협 2기 총회, 1993).

_____. 1995. 『자주의 길』 1(1995/01/20).

_____. 1996a. 『자주의 길』 2(1996/03/10).

_____. 1996b. 『자주의 길』 3(1996/06/23).

_____. 1996c. 『자주의 길』 4(1996/10/28).

Gamson, W. A. 1995. “Constructing Social Protest.” H. Johnston and B. Klandermans, eds. *Social Movements and Cultur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Goffman, Erving. 1974. *Frame Analysis: An essay on the organization of experien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Klandermans. 1992. “The Social Construction of Protest and Multi-organizational Fields.” In Aldon Morris and Carol Mueller, eds. *Frontiers in Social Movement Research* 1.

Melucci, A. 1992. “Liberation or Meaning? Social Movements, Culture and Democracy.” *Development and Change* 23(3). 43-77.

Snow, David A., and Robert D. Benford. 1988. “Ideology, Frame Resonance and Participant Mobilization.” *International Social Movement Research* 1. 197-219.

_____. 1992. “Master Frame and Cycles of Protest.” Aldon, D. Morris and Carol McClugrg Mueller, eds. *Frontiers of Social Movement Theor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Tilly, Charles. 1977. Getting It Together in Burgundy, 1675-1975.” *Theory and Society* 4. 479-504.

_____. 1986. *The Contentious French*. Cambridge, MA. and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투고: 2013.9.23 심사: 2013.10.10 확정: 2013.11.1